

인 사 말

밤새 내린 눈으로 교통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비바람과 강추위를 이겨낸 나무만이 거목으로 자랍니다. 또 다양한 순경계와 역경계 속에서도 승려의 본분을 지키며 조화롭게 주변과 소통해야만 이 시대를 이끄는 승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눈을 맞으며 저는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발족하는 의미를 더욱 더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33대 총무원은 올해 초 사부대중과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승가교육의 과감한 변화를 추진하겠
다고 종도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고, 자비를
구현하는 승가교육을 위해 ‘승가교육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종책을
강력하게 집행해 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종정예하께서도 경인년
신년교시에서 승가교육이 불교중흥의

미래를 담보할 대작불사임을 말씀하셨고,
이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을 당부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종도들이 종단에 기대하고
있는 것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화두처럼 챙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종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지만, 승가교육 불사는 어느
한 사람의 발원만으로 실행될 수 있는

불사가 아닙니다. 종단에서 다양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는 사부대중 한 분 한 분이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덕을 갖추신 분은 주변의 많은 분들에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학식이 있는 분은 교육 방향을 조언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또 사람만나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양한 계층의 종도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흐름은 형성되기 시작된다면, 실제로 다양한 종책들이 나오고, 또 자연스럽게 기금도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가교육 불사는 첫걸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걸음을 잘 내딛으면 종도들의 기대와 희망은 이미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초발심시변정각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다양한 계층의 사부대중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불교를 참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미래에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육 불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가장
큰 기초공사입니다. 종도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사부대중의 기대와 희망을
생각하며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족식으로 종단의 인재불사가
한층 더 도약하는 첫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승가교육진흥위원장